

## 작중인물의 욕망 역동체계

— 최인훈의 「웃음소리」를 중심으로 —

양 영 길\*

### 1

최인훈의 「웃음소리」는 술집 접대부를 하던 <그녀>가 일상의 생활 공간에서 벗어나 자살을 하기 위해 여행하는 여로 소설이다. 자살을 결심하여 기차를 타고 P은천에 도착, 방을 정하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음 날 죽기로 작정한 장소를 찾아갔으나 다른 두 남녀가 먼저 와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에 두 남녀가 이미 죽어 있었음을 알게 되고, 며칠을 더 묵고 회귀한다. 즉, '떠남 → 시련 → 회귀'의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여로구조 속의 욕망 주체인 <그녀>에게 욕망 발생의 에너지가 서로 맞물려 역동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뼈아프다고 느끼는 '박탈감'과 갖고 있는 것을 버리겠다는 '포기'가 <그녀>의 욕망 에너지이며 이들은 서로 맞물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욕망 역동체계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는 '박탈감'과 '포기'가 욕망 역동체계의 충분한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을 크게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나누고 있다. <그녀>가 '박탈감'을 느끼고 이를 되찾으려는 욕망은 삶의 본능에서 촉발된 욕망이며, '포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망은 죽음의 본능에서 촉발되는 욕망이다. 삶에 대한 욕망의 에너지는 '리비도'이다. 즉, 박탈당했다고 의식되는 것을 되찾으려는 욕망을 끊임없이 발생하게 하는 에너지는 리비도이며, 이에 의해서 욕망의 주체인 <그녀>는 삶을 위해서 박탈당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되찾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게 되고, 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박탈감을 맛보게 되는 박탈감의 반복과 연속으로 <그녀>의 욕망은 가동적((可動的) 상태에서 변화되고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또 다른 방향에서 포기를 요구하게 만들어져 부동적(不動的) 상태에 있던 죽음의 욕망이 서서히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포기는 죽음의 욕망 에너지인 타나토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웃음소리> 의미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 ① 그녀는 한 달 전까지 웃음과 몸을 돈과 바꾸던 <바 하바나>에 들어서면서 영화에서 본 사막의 앙상한 사보댕의 다리와 가지 같은 아픔을 느꼈다.
- ② 약속한 마담 <언니>를 기다리는 동안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떠올라 생각을 떨쳐 버리기 위해 줄칼로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다.
- ③ 마담이 와서 '아직도 붙잡지 못했나?'고 그녀의 상처를 건드렸다.
- ④ 수표를 받으면서 이제는 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 ⑤ 이튿날 서울역에서 P온천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옆자리는

동등한 중년 남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 ⑨ 옆자리 남자에게서 '뺏히는 계집인지 다 안단 말야.'하는 투의 눈길을 느끼고 사과를 벗기면서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 ⑩ 손가락을 베어먹고 툭툭 쓰는 아픔 속에서 창 밖을 바라보았다.
- ⑪ 사막이 자꾸만 다가오고, 사막을 품고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남이, 그 무정함이 슬프게 했다.
- ⑫ 해질 무렵 P은천에 도착하여 방을 정하고 거리를 돌아다닌다.
- ⑬ 목적지에 온 그녀의 마음은 사보뎡이 없는 사막같은 것, 또 내일이면 죽는다는 일이 거짓말 같이 느껴졌다.
- ⑭ 천주교회에 들어가서 마리아상을 보면서 유복자를 안은 홀어머니같이 생각하다가 저 사내(예수)가 나를 부른다면 죽는 것을 그만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⑮ 맑게 개인 다음날 그녀가 걱정만 산 속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세 번 이곳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상기하면서 좋은 자리임을 거듭 생각한다.
- ⑯ 그곳에는 남녀가 누워 있었으며 바람결에 여자의 짧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 ⑰ 온 밤을 꿈 속 — 잔디밭 위의 두 남녀의 행복스런 웃음 속에서 여자가 그녀 자신이며, 그 남자의 팔을 베고 누워 응석을 부리자 그 남자는 어느새 예수가 되고 예수는 선그라스를 꺼내 쓰고, '꼭 되는 사업인데 좀 돌려줘' 하자 남자의 팔에서 미끌어져 아래로 떨어졌다. — 에서 헤맨다.
- ⑱ 이튿날도 두 남녀가 벌써 와 있었고, 여자가 몸을 뒤채는 것이 보이고 암암한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 ⑳ 여관으로 돌아 온 그녀는 거기서 죽을 수 없으면 죽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 ㉑ 잠은 오지 않고, 그 풀밭에 그녀 자신과 검은 안경을 쓴 해사한 <그>가 정답게 누워있음을 떠올리고는 추억의 자리임을 깨닫고 화가 났다.
- ㉒ 몸을 판 돈을 선뜻 바치고 의심치 않을 만큼 순정을 바쳤다고 생각하며 낄낄 웃었다.

- ⑮ 풀밭의 남녀가 자기 자신과 <그>처럼 언젠가 갈라지고, 그 여자가 이곳을 찾게 될 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한다.
- ⑯ 점심을 먹고 그곳에 가 보니 여남은 사람들이 둘러 서 있었고, 일주일 전에 죽었다는 누군가의 소리를 꿈결처럼 들었다.
- ⑰ 거적대기 밑에서 여자의 짙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으며, 그녀의 머리가 환해지고 다리에서 맥이 풀리면서 풀밭에 쓰러졌다.
- ⑱ 일주일을 더 묵고 서울로 오는 열차에서 새로 산 줄칼로 손톱을 다듬으면서 쳐다보는 창 밖은 푸르게 더럽혀진 사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 ㉔ 사보댕의 가시 저 편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아주 귀에 익은 사무치는 목소리, 자신의 웃음소리임을 알았다.

<그녀>는 발전과 경제구조의 개편으로 말미암아 일터로 내몰리게 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 박탈감을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술집에서 웃음과 몸을 파는 여인이 된다. 이는 경제적 욕구를 위해서 여성으로서의 순결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는 <그녀>로 하여금 이 사회의 관습과 도덕적 측면인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순결이 박탈되는 거세 콤플렉스를 강박하게 된다. 이러한 강박 의식은 “그곳까지 걸어가는 사이가 무척 길게 느껴졌다. 수없이 오고 간 그 골목이 아주 낮설고 맞받는 힘을 헤치고 들어가야 하는 뿌듯한 물체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나의 망각의 잠재적 욕망 현상인 ‘자메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곳은 그녀가 바로 한 달 전까지 거기서 웃고 마시고 얼굴과 몸의 걸을 취한 속에서도 알맞게 계산하면서 주었다 뺏았다 하며 돈과 바꾸던 그곳이 아니었다. 다른 어떤 곳. 처음 와 보는 어떤 곳. 아마 그녀가 영화에서 본 일이 있는 저 사막에 가서 허허한 모래의 공간과 하늘로 뻗친 앙상한 사보댕의 다리와 가시를 보았다면 그녀의 가슴은 비슷한 아픔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적놈처럼 죽여지는 걸음에 그 때마다 못마땅해지면서  
홀의 끝에 있는 카운터까지 걸어가 널판에 핸드백을 소리 내어 얹으  
면서, 그녀는 말하였다.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풍경을 꼭 닮은 생활이다. 지금  
까지도 그랬으나 그때는 색칠한 불빛과 마지막 자리에 서 있다는 썩  
은 안정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굴 속의 어둠. 하늘을 찌르는 사보  
뎡의 산. 그 속에 마지막 자리에서 한 발 더 내디디려고 허위적거리  
는 마음이 있다.

위에서 <그녀>는 한 달 남짓 떠나 있던 <바 하바나>를 찾아오면  
서 그 동안 그의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술집 접대부 생활이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전에 느꼈던 경제적 박  
탈감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어느새 그 동안의 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낮선 골목'이며,  
'사보뎡의 가시를 본 아픈 가슴', '도적놈처럼 죽여지는 걸음', '썩은  
안정감', '허위적거리는 마음'인 것이다. 이러한 '도적놈의 걸음'이나  
'아픈 가슴' 그리고 '썩은 안정감'같은 것들은 <그녀>가 품고 있는  
박탈감 그 자체이며, 이의 박탈감을 잊으려는 행위가 '손톱 다듬기'인  
것이다. <그녀>는 이 소설 여러 곳에서 '손톱 다듬기'의 행위를 보여  
주고 있는 데, 이 행위는 처음에는 이러한 도덕적 순정적 박탈감을  
달래는 좌절 포용(frustration tolerance)의 수단이었다가 이 행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얼굴에 피가 오르는 느낌에 스스로 화를 내면서 그녀는 백을 열고  
화장용 즐칼을 꺼내 손톱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언제나 처럼 그 작업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료한 때, 또는 들레  
가 시끄러울 때, 저쪽 말을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눈을 마  
주치기 싫을 때, 좋을 때, 나쁠 때 — 어느 때건 손톱에 매달리는 버

뜻은 동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어서 그들은 그녀의 말보다도 그녀가 손톱을 손질하는 품을 보고 대답을 들었다. 더 손 댈 자리가 없어 보이는 손톱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그리고 희미한 흠을 찾아내어 조심스럽게 갈고 닦아 갔다.

이 '손톱 다듬기'에서의 <그녀>의 시간은 거이 과거와 현재에 두고 있다. 하나의 퇴행적 시간 여행인 것이다. 즉, 접대부 시절의 그 행위는 접대부로 발을 들여놓기 이전의 시간과 현재의 접대부 생활을 곱씹는 행위가 된다. 무엇에 대한 박탈 이전의 그리움과 박탈당하는 염려를 되새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적인 시간 여행보다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더 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처지이다. 그것은 박탈감의 상승을 조장하게 되고, 따라서 '손톱 다듬기'의 시간 여행을 자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거로의 여행은 그녀를 잠시 '허위적거리는 마음'과 '아픔 가슴'에서 헤어나게 해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 여행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공간 여행이다. P은천으로의 기차 여행과 거리의 배회가 그것이다. 이 역시 '손톱 다듬기'와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점으로 하는 과거로의 여행인 셈이다. 이러한 과거로의 여행은 걸잡을 수 없는 박탈감과 포기의 상호 작용으로 죽음의 본능을 움직여 죽음을 꿈꾸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는 삶의 욕망의 에너지인 '리비도'가 쇠퇴하고 죽음의 욕망인 '타나토스(thanatos)'가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여 움직이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아직은 '순정'에 대한 미련이 잠재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욕망을 답답해하고 있다.

모든 일은 끝나고 이제 열차 시간표처럼 꼭 짜여진 시간만이 잇달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데도 모든 것은 여전히 거짓말만 같다. 그것이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어느 누군가 그녀의 마지막 바람까지

를 몰래 다스리고 있어서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 보았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만이 정할 수 있는 일에 다른 사람이 참견하고 자기는 그것과 싸워야만 한다는 느낌이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아닌 제 손으로 죽자는 일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짜증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도마도 껍질 벗기듯 얇게 천천히 사과를 벗겨”가면서 죽음의 욕망을 거부하려는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까운 과거는 죽음의 욕망을 움직이고 먼 과거는 삶의 욕망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녀>에게 여행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프로이드의 말처럼 “종말에 가서 죽음의 본능은 새로운 창조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녀>는 “목적지에 온 지금 그녀의 마음은 더욱 비어 있다. 사보텡마저 없어진 사막 같다. 그 가시마저, 그래서 더욱 거짓말 같다. 자기가 내일이면 죽는다는 일이다.”라는 부분에서 죽음의 시간으로 설정해 놓은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삶의 욕망이 반등할 기미를 은근히 제시해 주고 있다.

저기 매달린 사내 저 황금의 팔을 가진 사람이 그 팔을 들어 나를 부른다면 나는 죽는 것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그녀는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느끼는 것이었다. 죽기가 겁나서가 아니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녀의 죽음에 맞먹는 일이라는 것을. 그만한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죽음이 거짓말처럼 걸들지 않고 죽음은 무거운 돌처럼 그녀의 발목에 매달릴 것을 그녀는 바랐던 것이다. 그녀는 저울의 이쪽 접시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다른 쪽 접시에 그녀의 결심을 — 죽음의 결심을 없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비누방울처럼 가벼워서, 살아있는 그녀의 몸과 맞먹어 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안달나게 한다.

이러한 삶의 욕망의 에너지는 여행의 종착역인 죽음의 욕망이 최

고조에 이르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죽음과 삶의 문제에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지배했던 죽음의 욕망이 삶의 욕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저울'은 삶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을 비교 측정하는 <그녀>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다. 시간의 문제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욕망의 에너지가 되는 것으로는 또 <그녀> 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것 이외에 죽음의 공간으로 가는 숲의 봄내음이 그녀의 저울 한 쪽에 또 다른 무게를 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죽자고 마음먹은 참에 졸리운 사람이 침대로 걸어가듯 그녀의 마음은 그 자리로 걸어갔던 것이다. 산은 한참 달아오르는 훈김과 풀냄새로 싱싱하고도 취하게 하는 봄내음을 풍긴다. 그 자리로 가까이 가면서 그녀는 숨이 가빠진다. 산길의 비탈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반대편 접시에 그녀의 진실에 맞먹는 목직한 저울추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에 이르러 두 남녀의 모습을 언뜻언뜻 훑쳐 보면서 삶의 에너지인 리비도가 샘솟고 죽음의 에너지인 타나토스는 허망하게 가벼워지고 있다. 두 남녀의 모습은 잃어버린 순정을 되찾아 주었던 <그>와의 관계, 이제는 잊어야만 하는 <그>, 그 시절의 행복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시간 여행과 공간 여행에서 맞본 퇴행(regression)을 통하여 삶의 욕망과 순정 사이의 유대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한 쌍이 잔디에 누워 있다. 여자는 남자의 팔을 베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모로 누워 있다. 그녀는 풀썩 주저앉았다. 바로 풀이 우거진 발 밑에 주저앉은 것이었으나 사실은 하나의 떨어짐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타고 있던 저울에서 저쪽 접시의 무게가 갑자기 옮겨지고



그녀의 마음은 허망하게 내려갔다.

그것은 하나의 '떨어짐'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것은 죽음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욕망의 다른 한 쪽이 무너져 의식의 혼돈을 가져와 환상<sup>1)</sup>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람결에 여자의 짙막한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모든 죽음의 욕망은 전의식 속으로 옮겨가게 된다.

바람결에 여자의 짙은 웃음소리가 들린 듯했으나 그녀는 그래도 쳐다보지 않았다. (...) 햇빛으로 덥혀진 공기와 벨이 터진 풀과 흙의 독특한 냄새가 비무려져 진하게 퍼져 일어난다. 그 냄새는 떨어질 때의 떨미 같았다. 그녀는 속이 올라왔다. 얼마나 지났는지 아무튼 무척 오랜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지친 느낌을 안고 그녀는 일어섰다. 빈터의 남녀는 여전히 누워 있다. 또 한 번 여자의 짙막한 웃음소리가 들린 듯싶었다. 그녀는 웃음소리에 쫓기듯이 자리를 떠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죽음의 욕망은 의식에서 전의식으로, 전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옮겨가 잠재되어 버리고, 그 동안 죽음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쇠퇴했던 삶의 욕망 에너지인 박탈감은 되살아나 꿈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꿈은 <그녀>에게는 아직은 혼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몽(顯在夢)의 기능은 <그녀>의 욕망 역동체계를 과장 왜곡하여

---

1) 자크 라캉, 『욕망 이론』, p. 139. 환상에는 신비스러운 점이 있다. 환상은 애매모호하며 모순적이다. 욕망의 종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의식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환상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또한 매우 모순적이게도 환상적인 차원은 도착적인 특성을 지닌 인간의 모든 열정을 나타내는 부조리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거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정신분석에서 환상이 지닌 도착성(perversity)을 해석하기 시작함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해석은 환상이 무의식의 경계 속에 규정됨으로써 가능해졌다.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의 꿈은 죽음의 욕망을 비워내는 일종의 공복 상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복 상태는 카텍시스(cathexis)의 양을 증가시켜 삶의 욕망에 가동적(可動的) 에너지로 작용하게 된다. 즉, 꿈의 기능은 하강하거나 잠복해 있는 욕망에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푸른 잔디 위에 두 남녀는 행복스럽게 누워 있다. 자세히 보니 여자는 어느새 그녀 자신이다. 그녀는 말한다. 당신 팔을 베고 이대로 죽고 싶어. 이 보다 더 행복하게 죽을 순 없잖아, 남자는 말한다. 왜? 하늘이 저렇게 근사한데. 이 풀 냄새 좀 맡아 봐. 죽으면 다 그만이야. 그러나 여자는 응석을 부리는 것이다. 싫어이. 지금. 당신과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지금 이대로 영원해지고 싶어. 남자는 또 어느새 예수였다. 예수는 황금의 팔을 그녀의 머리 밑에 받친 채 하얀 이를 드러내고 쓸쓸하게 웃었다. 그 얼굴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꿈속의 그녀는 생각하였다. 예수는 햇빛이 반짝이는 나머지 한편의 금빛 팔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을 수 없어. 어머. 하고 여자는 말했다. 그거 무슨 뜻? 너는 내 팔에서만 죽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죽어요. 안 돼, 하고 예수는 말하면서 누운 채로 호주머니에서 검은 선그라스를 꺼내 썼다. 그러자 해사한 눈자위가 꼭 누구를 닮았다고 꿈속의 그녀는 생각하였다. 왜 안 돼? 하고 그녀는 베고 누운 금빛의 팔을 머리로 비빈다. 예수는 말하였다. 꼭 되는 사업인데 좀 돌려줘. 그녀는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남자의 팔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숲 속의 두 남녀를 <그>로, 또 <그>를 예수로, 다시 예수가 <그>로, 이러한 혼돈은 죽음의 욕망이 지배하던 <그녀>의 의식에서 삶의 욕망으로 옮겨지기 위한 혼돈인 것이다. 앞서 들은 웃음소리도 이 혼돈의 시작이며, 계속되는 웃음소리는 혼돈을 거쳐 새로운 질서 즉, 삶의 욕망이 차지하는 질서로 진입하는 것을 응축(condensation)

하고 있다.

거기서 죽는 것을 그만두는 일. 그것은 어려웠다. 죽음을 결심한 참부터 마음에 둔 탓으로 이제 그녀에게는 죽음이자 그 터였다. 거기서 죽을 수 없으면 죽을 길이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잡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밤사이엔 거기서 약을 먹는 일이다. 비록 그 터는 마찬가지로였으나 밤에 거기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으려니와 그 터 그 자리의 맛도 바뀌는 일이었다. 그녀가 처음 그 터를 본 것도 낮이었고 드러누워서 보는 하늘과 거기 떠 있는 여름 구름과 둘러선 나무들의 술렁댐이며 환한 공기가 그 모습이었다. 밤의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그녀로서는 밤에 거기를 쓴다는 것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새 사실이었다.

삶의 욕망으로의 전환은 <그녀> 자신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녀>가 그토록 추구했던 죽음의 욕망을 실현시킬 공간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죽음의 욕망이 박탈당하면서 삶의 욕망을 되찾고 있다. 여기서의 욕망의 전환 에너지는 시기와 질투인 셈이다. 즉, 이 에너지에 의해 두 남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순정을 발견하고, 박탈당했다고 여겼던 자신의 순정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삶의 에너지로 재충전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의 재충전은 그동안 부정(denial) 고립화(isolation)되었던 삶의 욕망이 생기를 되찾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끝내 무서운 소설의 무서운 대목을 마지못해 열어 보는 어리수긋한 독자처럼 그녀의 마음의 어떤 문을 열었다. 거기 그 풀밭에 그녀 자신과 검은 안경을 쓴 해사한 <그>가 정답게 누워 있었다. 그 광경은 그를 화나게 했다. 그 터가 바로 <그>와의 추억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거나 한 것처럼 자기 행위의 뜻이 밝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를 짓밟는 것

이 그 공지를 멋대로 차지한 남녀의 속셈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밉살스러웠다. <그>에게 순정을 주었다고 생각해 본적이 아주 없다. 그런 순정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한 사이였으므로 오히려 <그>의 순정을 그녀가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안됐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이였다. <그>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도 그런 미안함을 조금 때우는 생각이 있었고 <그>에게 성의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었다. 설령 다른 남자가 그런 다짐으로 말해 왔으면 그녀는 옹했으리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빈터에 정답게 누운 남녀를 보는 순간 그녀는 환각이라고 의심하였다. 자기와 <그>가 거기 누워 있었으므로 그것은 기쁨의 환각이었고 그 환각과 죽음은 맞먹었다. 바로 다음 순간에 환각은 깨어지고 그녀는 허망하게 떨어졌다. 그 때 그녀는 그 떨어짐의 뜻을 알고 있었다. 다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환각이었다. 그녀는 사랑했던 것이다. 몸을 판 돈을 선뜻 바치고 의심치 않을 만큼 순정(!)을 바쳤던 것이다. 순정. 그녀는 킬킬킬 웃었다. 연거푸 킬킬킬 웃었다. 그 천한 웃음소리가 자기의 목구멍이 아니고 방구석 어둠 속에 숨은 어떤 여자의 것인 것처럼 느끼면서 퍼뜩 잠에서 깨었다.

따라서 또 다른 현재몽은 죽음의 욕망에 대한 냉소적 웃음을 통하여 그 동안 강박해 오던 모든 것을 좌절 포용하고, 방어기제적인 죽음의 욕망을 순응기제적인 삶의 욕망으로 전환하면서 죽음의 욕망 에너지를 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꿈의 기능은 삶의 욕망으로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한다.

밤의 나머지 시간은 방금 꾸 꿈의 안팎을 돌이켜 생각해 내려는 씨애질로 새워졌다. 텅 비어서 자꾸 몸이 솟구치는 저울대의 저편에 이번에는 그 꿈을 올려놓으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다. 그러는 중에 그녀의 마음은 다른 끝을 잡았다. 그녀는 빈터의 남녀가 자기 자신과 <그>처럼 언젠가 갈라지는 날을 그려봤다. 다정스럽게 팔을 베고 있던 그 여자가 자기처럼 혼자 그 빈터를 찾게 될 어느 날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거짓말처럼 마음이 잡혔다. 마치 온 밤내

그 맺음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뜻을 이룬 것처럼 느끼면서 크게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끈 깊은 잠이 들고 늦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이러한 삶의 욕망의 질서는 “간밤 잠들 때 얻은 심술긋은 희망이 아직도 그녀를 평안케 하고 있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도 어찌처럼 안타깝지 않았다. 오늘 또 자리를 차지한 그들을 보게 되더라도 크게 실망할 것 같지도 않았다. 그 때는 그 때 가서 생각하지.”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두 남녀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애도의 기능과 연계<sup>2)</sup>하여 삶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 사이에 벌어진 틈을 매우는 구실을 하고, 이는 삶의 욕망이 지배하고 죽음의 욕망이 잠재된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녀>로 회귀시켜 준다. “거적대기 밑에서 전날에 들은 그 웃음소리 — 젊은 여자의 짙막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머리가 환해지고 다리가 맥이 풀리면서 그녀는 풀밭에 쓰러졌다.”고 풀밭에 쓰러짐을 통해 그 동안 지배했던 죽음의 욕망이 쓰러지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회귀는 그 동안 삶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 사이의 대결과 시련의 과정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여기서의 손톱 다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술집 접대부 생활이 자신이 살아 온 여정 속에 있음을 다소 인정(좌절 포용)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 여행인 것이다. “일 주일을 더 묵고 그녀는 서울로 오는 열차를 탔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가게에서 새로 산 줄칼로 골똘히 손톱을 다듬으면서 가끔 창 밖을 내다본다.” 여기서의 시간 여행은 미래로 열려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애도의 작용은 무엇보다 의미화 요소들이 존재 속에 생겨난 구멍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수행된다. 자크 라캉의 위의 책, p. 168.

<그녀>의 욕망 에너지인 박탈감과 포기의 배경은 '운명', '현실과 삶', '페미니즘적 아웃사이다' 등을 포괄하는 '한(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가난, 신분, 결핍, 상실, 실연, 좌절, 원망, 자책 등이 복합된 한(恨)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인이 한꺼번에 분출하듯 포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정'을 바쳤다는 데 따르는 상실과 또 신체적 변화(임신)가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표면에 등장하고 있는 <그녀>의 욕망은 정신적 공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가슴 속 깊이 사막을 품고 있는 술집 접대부가 순정을 바쳐 사랑을 했고, 그 동안 벌여 놓은 돈을 <그>에게 몽땅 털어 넣었다가 사기 당하고, 또 <그>와의 관계로 말미암은 임신의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의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를 향한 대타적(對他的)인 원한, 또는 이 문제를 다소 자신의 문제로 소화하려는 반대타적(反對他的) 반대자적인 통한(痛恨)의 형태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怨恨)과 통한을 품고 자살을 결심하고 P은천으로 가는 열차에 탔으나 옆자리에 있어야 할 <그> 대신 뚱뚱한 남자가 은근히 수작을 걸어온다. 이에 대응하여 살인 충동을 느끼다가 손가락을 베어먹고 툭툭쏘는 아픔을 즐긴다. 그리고 P은천에 도착하여 방을 정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천주교회에 가서 벽에 걸린 예수를 만나고 마리아상을 만난 다음부터는 반대타적이던 통한이 대자적(對自的)인 회한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타적인 한에서 대자적인 한으로의 전환은 다음날 주점을 누일 장소에 갔으나 두 남녀가 먼저 와 있고, 그들에게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의 한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하여 정한(情恨)의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 즉, 떠날 때 품고 있던 원한·통한이 회한으로 변모되고 다시 정한으로 변모

되어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떠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원한·통한이 회한(悔恨)으로 변모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 변모 양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① 사막 + 상처 ⇒ 한이 맺힘 ⇒ 자살 결심 ⇒
- ② 떠남 ⇒
- ③ 만남 [‘옆자리 남자’와 ‘살인충동’ → ‘마리아상’과 ‘유복자의 어머니’ → ‘두 남녀’와 ‘웃음소리’ → ‘두 남녀의 죽음’과 ‘웃음소리’] ⇒
- ④ 회귀 ⇒ 사막 + 웃음소리

위에서 보듯이 <웃음소리>는 이미 생성되어 품고 있는 한이 어떻게 삭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어두운 한에서 밝은 한으로 변모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모는 만나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과 치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미 맺혀있는 원한·통한에서 출발하여 이의 해한(解恨)의 방편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동안 죽을 장소로 생각해 두었던 장소인 P은천을 향하여 떠나고 열차의 옆자리 남자에게 살인 충동을 느끼고 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천주교회에 들어가 마리아상을 보면서 유복자의 어머니로 쳐다보고, 또 두 남녀에게서 ‘그’와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들에게서 웃음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결코 한을 삭이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이러한 만남은 철저히 작중인물들 중심으로 치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은 소극적으로 한을 삭이고 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웃음소리>에서의 치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 ① 자신 ⇔ 사막 : 유사 치환
- ② 옆자리 남자 ⇔ <그> : 유사 치환
- ③ 자살결심 ⇔ 살인충동 : 대립적 치환
- ④ 살인충동 ⇔ 손가락 베어먹음 : 유사 치환
- ⑤ 자살여행 ⇔ 손가락 통증 : 유사 치환
- ⑥ 예수 ⇔ <그> : 유사 치환
- ⑦ 마리아상 ⇔ 자신 : 유사치환
- ⑧ 유복자 ⇔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 : 유사치환
- ⑨ 두 남녀 ⇔ <그>와 자신 : 유사 치환
- ⑩ 죽음의 공간 ⇔ 사랑의 공간 : 대립적 치환
- ⑪ 두 남녀의 웃음소리 ⇔ <그>와 자신의 추억 : 유사치환
- ⑫ 두 남녀의 죽음 ⇔ 자살포기 : 대립적 치환
- ⑬ 사막 ⇔ 순정 : 대립적 치환
- ⑭ 여자의 웃음소리 ⇔ 자신의 웃음소리 : 유사 치환

이러한 치환 구조는 유사한 것끼리 치환되는 유사치환과 상반된 것끼리 치환되는 대립적 치환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유사치환은 환기적 기능을 하고 대립적 치환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이러한 <그녀>의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하면, 첫째 사회 경제적 구조의 모순에 의한 경제적 박탈감, 둘째 경제적 욕구를 위한 슬집 접대부로 말미암은 여성적 순정적 박탈감, 셋째 첫째와 둘째가 복합된 <그>로 인한 박탈감, 넷째 두 남녀가 먼저 차지하고 있는 죽음의 공간에 대한 박탈감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박탈감에 의한 행동과 욕망은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이러한 포기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의 욕망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포기한 것을 정리하면, 첫째 술집 접대부로 일하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박탈감을 메우기 위한 순결의 포기, 둘째 순결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그>와의 사랑과 죽음을 생각하면서부터 주변을 정리하는 경제적 포기, 셋째 <그>와 결부되는 여러 내용과 관련되는 삶의 포기, 넷째 두 남녀의 사랑을 시기하고 죽음을 애도하면서 발생하는 죽음의 포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박탈감과 포기는 현재몽과 냉소적 웃음, 시간 여행과 공간 여행,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기능 등과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작용은 부동적(不動的) 욕망을 가동하는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하고, 가동적 욕망을 지속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죽음의 욕망을 승화시켜 삶의 욕망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욕망 에너지의 배경은 '운명', '현실과 삶', '페미니즘적 아웃사이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한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은 어두운 한에서 밝은 한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변모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과 치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해한의 방편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여행을 떠나면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소극적으로 한을 삭이고 있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다. 즉 임신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공황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의 방황과 갈등이 삶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이 역동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